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黃 振 洙

老人危機 克服을 위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hurch Welfare Service of the Elderly to
Weather Crisis

1998年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鄭 容 培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黃 振 洙

老人危機 克服을 위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hurch Welfare Service of the Elderly to
Weather Crisis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鄭 容 培

鄭容培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8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目 次

제 1 장	序 論	1
제 1 절	研究의 目的	1
제 2 절	研究의 範圍 및 方法	3
제 2 장	老年期 危機에 대한 理論的 背景	5
제 1 절	危機에 대한 概念	5
1.	위기의 의미와 개념	5
2.	위기의 원인과 특징	7
제 2 절	老人의 聖書的 理解와 危機의 類型別 種類	9
1.	노인의 정의와 성서적 이해	9
2.	노년기 위기의 유형별 종류와 특징	15
제 3 장	老人危機 克服을 위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實態 分析	33
제 1 절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類型	33
1.	교회의 자원	33
2.	교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유형	37
제 2 절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運營 實態 分析	39
1.	교회내 노인시설 운영 실태	39
2.	교회내 노인학교 운영 실태	46
3.	교회내 자원봉사 운영 실태	49
4.	운영실태 분석 결과	51

제 4 장	研究 結果 問題點 및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活性化 方案	57
제 1 절	研究 結果 問題點	57
1.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57
2.	교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59
제 2 절	老人危機 克服을 위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活性化 方案	61
1.	사회적 관점에서의 방안	61
2.	교회적 관점에서의 방안	63
제 5 장	結 論	67
參 考 文 獻		70
ABSTRACT		75

表 目 次

<表 1-1> 연구의 체계	4
<表 2-1> 서울시내 60세 이상 노인의 소외·고독에 관한 조사 ..	25
<表 3-1> 천주교 운영의 양로원 현황	42
<表 3-2> 개신교 운영의 양로원 현황	43
<表 3-3> 주요 특징	54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目的

老人人口의 증가, 핵가족화에 수반하는 가족생활의 변화, 가치의식의 변화에 따라 老人問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해방이후 서구문화의 도입에 따른 개인주의 가치의식의 보편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敬老孝親 사상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결국 사회와 老人間, 젊은이와 老人世代 간 가정내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심리적 孤立과 疏外라는 老人危機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982年 老年을 위한 세계대회에서는 老人問題에 대해 첫째는 老人의 인간적문제로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사회복지, 소득보장, 사회적응 및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둘째는 산업화와 도시화 및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로 구분하면서 이 두가지 문제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¹⁾

이들 老人問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우 흔히 빈곤과 질병이 가장 심각하고 일차적인 문제이며, 그 다음이 고립과 소외를 포함한 심리 문제라고 인식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貧困과 疾病에 대한 대처에 초점을 두어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가족의 기능 약화, 근접 사회와의 교류 감소, 대인관계의 질적

1) 성규탁, 김근식, "노인들의 안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1988년 제8호, p. 69.

변화 등에 기인한 사회 재적응의 어려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의 증가 등 사회문제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불구하고 국가가 경제적 扶養과 道具的 扶養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동의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적 대응책의 마련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²⁾

老人에 대한 경제적 扶養이나 도구적 扶養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서적 扶養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망을 유지, 형성, 재편하는 노력이 社會的 차원에서 필요하며, 敎會的 차원에서는 老人의 문제해결을 위한 敎會的 수용과 이해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초로 한 老人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敎會內 관계에 주목해 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老人들은 무위 무용의 상태일수록 고독, 고립, 무료함을 느끼게 되고 중국에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老年期 危機 문제는 개인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힘들고 地域 社會的 또는 國家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로 요약 전개 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老年期 危機에 대한 의미와 개념 그리고 聖書的 이해를 통한 老年期 危機의 유형별 종류와 내용을 정립한다.

둘째, 老人들의 사회 재적응력을 높이며 고독감을 완화하고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敎會 福祉事業 실천의 방안을 제시하며, 점점 심각해지는 老人들의 社會問題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敎會의 老人福祉

2) 송대현, 윤가현, “노년기의 고독감;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1989년 제9호, pp. 65-77.

서비스 실천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神學學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모든 이론과 실천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자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教會 福祉事業 또한 외국의 프로그램과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은 우리 실정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순수 한국형 老人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기에 教會 老人福祉의 韓國化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에 맞는 老人危機 극복을 위한 교회내 老人福祉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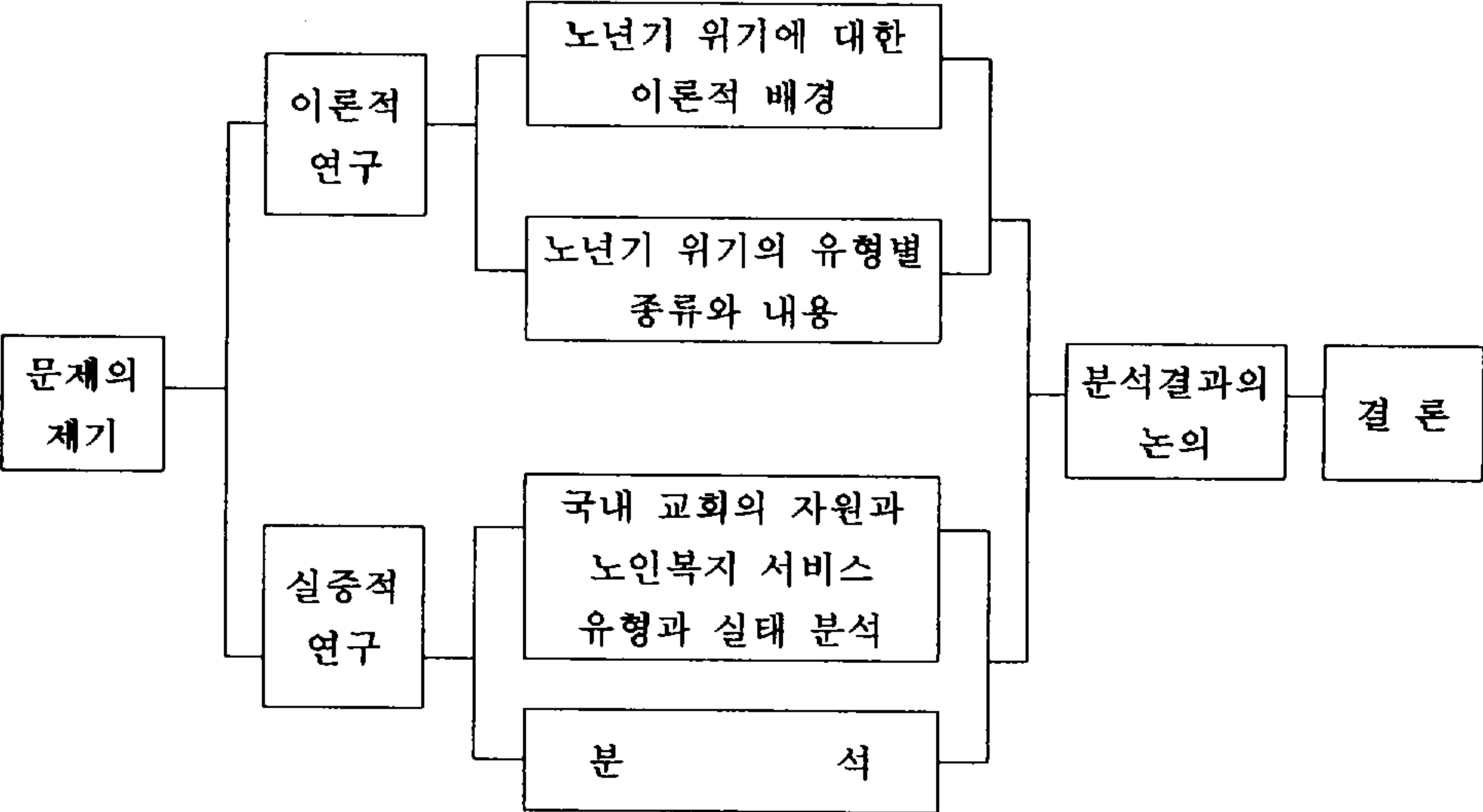
우선 연구범위에 있어서 문헌연구로는 제2장에서 老年期 危機에 대한 이론적 특성과 이해를 정립하고, 또한 老人의 聖書的 이해와 老年期 危機의 유형별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老人危機 극복을 위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실태 분석을 教會內 資源의 범위와 현재 教會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老人福祉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老人施設 프로그램과 老人學校 운영 실태와 교회내 老人福祉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 활용 실태를 分析해 본다.

제4장에서는 앞의 제3장에서 분석한 실태를 바탕으로 연구결과 문제점과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社會的 관점과 教會的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한 후 제5장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老人問題와 老人福祉에 관련된 諸 이론의 국내 외 저서와 간행물 등을 토대로 1차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사례 연구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계 및 종교계, 정부 등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수집 재분류하여 본 연구에 맞게 활용하고자 한다.



<表 1-1> 연구의 체계

제 2 장 老年期 危機에 대한 理論的 背景

제 1 절 危機에 대한 概念

1. 위기의 의미와 개념

먼저 危機(Crisis)에 대한 언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웹스터』(Webster)사전에는 “위험한 고비”(Crucial time), “어떤 일의 전환점”(turning point)이라고 정의하며 危機에 어원인 희랍어 “Krinein”의 뜻은 “결단하다”이다. 이 말은 또한 ‘전환점, 절정’ 및 ‘판단’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危機는 문제와 고난과 긴장이 아울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과 희망을 동반하고 있다.³⁾

심리적 의미에서 危機는 ‘어떤 외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다소 공식적으로 말하면 ‘危機란 한 인간이 안녕에 위협을 주며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사건 및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러한 危機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인생은 끝없는 危機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기형아 자녀의 출생, 이혼, 입시에서의 실패, 예기치 않은 질병, 사고, 사랑하는 이와와의 이별 등은 인간을 당황하게 하고 威脅, 不安, 混亂, 憂鬱 등의 감정을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危機는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상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보아 危機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3) 이기춘, “목사와 위기상담”, 「월간 목회」, 1990년 10월호, p. 136.

4) Gray R. Collins,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p. 97.

다. 하나는 ‘단계적, 성장적, 발달적 危機’(Developmental crisis)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황적 危機’(Situational crisis) 또는 사고 危機이다.

‘發達的 危機’는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자연스런 危機로 출생의 경험, 등교 첫날의 경험, 사춘기, 결혼에의 적응, 마지막으로 죽음의 危機로 사실상 발달적 危機 중 가장 큰 공포와 불안의 시기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것에 적당히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은 危機에 빠지기 쉽다.⁵⁾

에릭슨(Erikson)의 인생의 발달적 단계는 이러한 危機의 週期가 위협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간의 성장은 일련의 危機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결과라고 했다.⁶⁾ 리안호프(Leann Hoff)는 발달적 危機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危機를 맞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서 주기적으로 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⁷⁾ 발달적 危機는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적극적 의지가 있을 때 해결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狀況的 危機(事故 危機)’이다. 이 危機는 이름 그대로 예견하기가 매우 힘들며 따라서 그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외부적인 어떤 사건에 의한 준비되지 못한 내면의 반응에

5) Howard J. Clinebell, 『현대 목회 상담-카운셀링의 기본 유형』, 박근원 역,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93), p. 172.

6)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Norton Co, 1980), pp. 247-274.
인격 발달은 여러개로 분해되고 달라진 인격상 국면들의 연속적인 흐름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각개의 국면들은 자신의 독특한 발전적 도전을 가지고 있다. 각 단계는 이 전에 성공적으로 완성된 관계들에 기초해 있다. 인격의 각 국면 사이의 변화의 시기는 불만과 위기의 시간이다.

7) 정태기, 『위기 목회 상담』, (서울: 대한기독교 사회, 1993), p. 57.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지위나 소유물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통사고사, 정신병, 가난, 전쟁, 자녀의 가출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사건들은 전혀 뜻밖에 일어나기에 危機 당사자들은 대부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기에 그 충격은 심각하다.

2. 위기의 원인과 특징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지탱하도록 하는 생활필수품, 경제적 안정, 자아 정체성, 서로가 친밀하게 도움을 주고 받는 가까운 사람들,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단, 자신이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 역할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목표를 세우고 주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價値와 意味를 지닌 체계⁸⁾ 등이다.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에 자신이 깊은 연관을 맺고 사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일체감을 잃으면 고통을 겪게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일체감을 느껴온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危機 당사자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되고 고난의 수렁에 헤매이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危機 발생의 원인을 첫째, 자신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을 喪失했거나 喪失의 위협에 부딪혔을 때 발생한다. 둘째, 새로운 사람, 사건에 대면하게 될 때, 특별히 자신에게 위협적인 인물, 사건에 직면한 경우이다. 셋째, 소중히 여기던 지위나 역할을 喪失하였거나 변화를 겪었을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地位나 役割이 자신과 일체감을 느끼며 자

8) 정태기, 전제서, p. 47.

신의 삶의 전부처럼 여기던 이들에게는 더욱 충격이 크다.⁹⁾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평생을 일해온 직장으로부터 조기 은퇴하는 경우로 말미암아 危機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다.

이외에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이 촉발되어 危機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향하던 목표가 장애에 부딪혔을 경우 습관적인 노력이나 과거의 경험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절망을 느끼는 경우, 또한 삶의 과정에서 가치를 상실함으로 심한 우울에 빠지는 경우이다.¹⁰⁾

인간이 危機를 당하면 보통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외부로 발산되게 되는데 이때 발산의 대상은 危機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¹¹⁾ 갑자기 危機意識이나 긴장감을 느끼고, 당사자는 심리적 불편감과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고 행동의 혼란이 나타난다.¹²⁾

또한 칼리스(I. Kallis)와 해리스(R. Harris)는 인간이 危機를 당하면 대략 네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¹³⁾ 목표상실, 일상적인 도움에 대한 불신, 자기 동일성의 와해-위기를 맞게 되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까지 연결되어서 자신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죄책감과 분노가 재현된다. 그리고 적응력이 감퇴이다.

이외에도 한 정신의학자에 따르면 사람은 危機에 처하면 자신의 내적 차원을 가동시키면서 동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¹⁴⁾

危機를 맞는 태도에 있어 건강한 방법으로 危機를 맞는 사람과 불건

9) 김민영, “농촌 노인기 위기상담”,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6.

10)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정영사, 1992), p. 280.

11) 정태기, 전계서, p. 95.

12) 이장호, 상계서, p. 280.

13) 이기춘, 전계서, p. 137.

14) Gray, R. Collins, 전계서, p. 101.

강한 방법으로 危機를 맞는 사람으로 나눔에 있어 각각 그 특징을 보이는데, 건강한 방법으로 危機를 맞는 사람은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좀 더 완전히 파악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 자신이 문제에 직접 대처하며 책임을 받아들인다. 반면 불건강한 방법으로 危機를 맞는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며 술 등을 통해 문제를 피하며 자신이 문제로 슬픔과 죄의식과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숨기고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책임을 대신 져 주기를 기대한다.¹⁵⁾

제 2 절 老人의 聖書的 理解와 危機의 類型別 種類

1. 노인의 정의와 성서적 이해

가. 노인의 정의

老人을 전통적 의미에서는 퇴직을 맞는 60세부터로, 일을 그만두고 쉴 때를 의미하고, 法的인 의미에서는 65세부터로 보는데 그것은 사회적 안전과 직장에서의 은퇴 때문이라고 본다.¹⁶⁾

그러나 老人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은 문제가 있다. 이유는 정신연령과 생리적 연령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社會, 經濟, 文化的 배경과 전통과 습관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

15) Howard J. Clinebell, 전거서, pp. 176-177.

16) D. B. Bromly, 「노인 심리학」, 김정휘 역, (서울: 성화사, 1990), p. 293.

비슷한 말이지만 임춘식은 법적인 의미의 노인에 대해 경제 활동을 중지해야 할 신체적 한계를 보이는 시기로 본다. 경제활동이 법적인 의미의 규정에서의 특징이다.

레오나드 브레스(Leonard B. Bress)에 의하면 老人이란¹⁷⁾ 생리적,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 면에서 개성의 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가 과거에 속해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1951年 제2차 國際 老年學會에서는 老人概念을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老人이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生理的, 環境的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¹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에 대한 정신적인 적응성이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에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韓國 사회에서 老人이란, 노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의존적이며, 이를 사회, 문화적으로 ‘효(孝)’라는 개념으로 보장하여 장년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현대 韓國 사회에서는 ‘효(孝)’의 약화로 앞의 정의에 무리가 따른다.²⁰⁾

결국 老人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사회의 人口, 經濟 및 社會, 文化的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7)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4), p. 2.

18) 정태기, 전게서, p. 217.

19) 서병숙, 상게서, p. 2.

20) 1994년 9월에 발생한 지존과 살해극, 택시운전사의 무차별 여성 살해 등이 잇따르는 극악무도한 아노미 현상의 근본원인 중에 하나로 사회학자들은 ‘효(孝)’의 붕괴를 들고 있다.

나. 노인의 성서적 이해

聖書는 일반적으로 동양적 관습과 조화되게 老年을 존경하고 영예롭게 여겼다. 이러한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서 宗教的 삶에 본질적이다.²¹⁾

또한 老年까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경건의 보상, 계명을 잘 지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자주 인식되었으며²²⁾ 老人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에서 老人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원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老人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약

구약에서 老人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언급한 곳은 없지만 老年(old age)과 관련된 말쑼은 약 250여 곳이나 된다. 老人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자칸(Zagan)이다.²³⁾ ‘자칸’은 ‘수염이 나 있다’는 뜻으로 수염이 없는 사람과 반대되는 나이들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칸(Zagan)의 동의어로 세바(Šēbā)는 ‘백 발’, ‘센 머리카락’이라는 뜻으로 老人을 지칭한다.²⁴⁾

또한 야세스(yāšēs)는 ‘나이든’, ‘노쇠한’을 의미하며 야시스(yāšīs)는 ‘나이 들어 존경할 만한’, ‘덕망있는 이’라는 뜻으로 老人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²⁵⁾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老人을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퇴

21)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리원, 1994).

22) 구약성서, 욥기 5:26.

23)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유형”, 『목회와 신학』, (두란노, 1994. 5), p. 62.

24) 구약성서, 사사기 8:32, 호세아 7:9.

25) 구약성서, 욥기 12:12.

하여지는 60~80代를 지칭하고 있다.²⁶⁾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 어원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舊約聖書에 나타난 老人의 의미는 첫째, 존경의 대상인 老人을 의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야시스(yāšîš) 외에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老人의 사회적 보호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²⁷⁾ 또한 레위기에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老人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였다.²⁸⁾ 잠언에는 “너 낡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⁹⁾ 누구든지 老人을 공경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개인, 가정적 차원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老人을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³⁰⁾

둘째, 지혜의 상징인 老人을 의미하였다. 舊約聖書는 지혜는 老人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잠언과 전도서의 배후에 있는 지혜의 교사들은 대체로 老人들이었다.³¹⁾ 지혜는 老人들의 유산인 것이다. 또한 장로는 老年의 권좌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지도자, 부족의 장(長), 전쟁의 지휘관, 재판관, 권면자로 공동체의 핵심이었다. 또한 신명기 32장 7절, 열왕기상 12장 6~8절은 그 의미를 한층 더하고 있다.³²⁾ 이런 사실들은 老人을 지혜의

26) 류영기, 『성서사전』,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리원, 1990), p. 140.

27)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레위기 19:3.

28) 레위기 19:32.

29) 잠언 23:22.

30) 신명기 28:50.

31) 이은규, 전계서, pp. 62-63.

32) 신명기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을 할 것이요,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열왕기상 12:6-8은 르호보암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충성했던 노인들의 지도를 벗어나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함으로 나라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쁨과 축복의 老人을 의미하였다.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라고 하였고 잠언 20장 29절은 “젊은 자의 여와는 그 힘ियो,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고 하였고 장수는 하나님께로 부여받는 것으로(신 4:40, 11:21) 老人의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기쁨이며 祝福이었다. 또한 老人의 祝福은 그가 자녀들에게 祝福의 말을 함으로 祝福을 전달하기도 하였다(창 47:29, 49:33). 이것은 곧 老人期는 고통, 소외의 시기가 아닌 祝福과 기쁨의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老人을 의미하였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서 나는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³³⁾ 이는 老人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늙어도 건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老人期는 원숙한 人格的 성숙과 靈的 성숙시기임을 말해준다.

2) 신약

신약 헬라어는 老人을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늙은이(게론, γερων), (요 3:4), 늙은 나이(게라스, γeras), (눅 1:36), 늙은이, 연장자(프레스 부테스, πρεσβυτης), (눅 1:18)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新約聖書에 나타난 老人의 모습은 첫째, 주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명과 주권을 가진 자였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³⁴⁾ 부모는 자녀들을 주안에서 진리로 양육시켜야 할 주

잘못 인도하고 쇠퇴의 길로 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33) 시편 17편 18절.

권과 의무를 부여 받는다. 디도서 2장 4~5절에서도 늙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훈계하도록 교육적 사명을 밝히고 있다.

둘째, 공경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老人을 대할 때 부모에게 하듯 공경할 것을 가르치는 디모데전서 5:1~9를 보면 늙은 과부의 자녀와 손자들이 어떻게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공경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初代敎會의 늙은 과부를 구제하는 모습은 모두가 老人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본보기이다.

셋째, 靈的 성숙의 시기였다. 老人은 육체적으로 노쇠하지만 신앙의 깊은 경지, 즉 체험적인 신앙과 변함없는 인내로 영적 성숙함의 시기이다. 때문에 初代敎會에서 감독, 장로의 직분을 老人에게 맡기고 딤편 5장 5절에 보면 여자 老人들이 더 많은 시간과 힘을 敎會와 기도 생활에 쓸 것을 말하고 있다.³⁵⁾ 바울은 “그러므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³⁶⁾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인 노쇠에 낙심할 일이 아니다.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가 老人期이다.

3) 성서에 나타난 노년기의 유형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삶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세의 120세(신 34:7) 생애 중 특별히 그의 老年은 그의 삶은 지도자로서의 삶이었음을 볼 수 있다.

指導者로 부름 받은 것은 약 80歲가 되던 해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 40年을 애굽 공주의 슬하에서, 40年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했다. 그러므로 老年에 지도자로 세움 받은 모세는 경

34) 에베소서 6:1-4.

35) 정영식, “교회에 있어서 노인은 누구인가?”, 「풀빛목회」, 1982년 12월호, pp. 39-40.

36) 고린도전서 4:16.

힘과 지혜, 지도자의 권위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민족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고 반기를 들었지만 그는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며 가나안 복지를 앞두고 눈을 감기까지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8일을 애곡하던 관습을 깨치고 무려 30일을 애곡한 것³⁷⁾을 보면 그의 人生末年은 존경으로 가득차다고 볼 수 있다.

또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와 축복을 보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후손들의 앞날을 위한 애정 어린 당부와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볼 수 있다. 육신적으로도 맡겨진 신체를 잘 관리하여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³⁸⁾ 老年의 삶을 살아 끝까지 指導者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노년기 위기의 유형별 종류와 특징

가. 노년기 위기의 유형별 종류

老人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사회적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서 社會, 文化, 經濟的인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老人의 이해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적인 면에서의 老人理解로 역할을 잃은 老人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老人들은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37) 신명기 34:8.

38) 신명기 34:7.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老人들이 겪는 危機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老人들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기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젊은이들이 판을 치는 세상, 돈이 삶의 으뜸으로 등장한 사회, 윤리와 도덕이 상실된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늙고 가난하며 적응능력이 약한 老人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천덕꾸러기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 老人들이 당하는 危機는 많이 있겠으나 보통 4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經濟的 貧困, 健康惡化, 役割喪失, 疏外와 孤獨感이다.³⁹⁾ 이런 危機들은 老人들에게 있어 한가지씩만 있는 것이 아닌 두 세가지가 겹쳐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危機외의 본인의 죽음에 대한 危機 또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危機를 첨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老人들의 危機의 근본 원인은 사회 변동에 따른 노령화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老人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나 老人이 된다는 인식 부족으로 인한 관심의 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老人들이 맞는 危機를 살펴보고 상처받은 老人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돌볼 것인가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가난으로 인한 위기

老人期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시키며 老人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줌으로 결국은 성공적인 老人期の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

39) 임춘식, 『현대 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p. 43.

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老人期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중에 하나는 經濟的 사정의 악화일 것이다. 이에 따른 여러 측면의 老人問題가 발생하는 데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老人의 경제적 힘이 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다.⁴⁰⁾

老人은 가난하다. 일부 老人들을 빼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궁한 삶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1年度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거택보호인 경우는 가구주의 66%가 60세 이상의 老人이었고 자활보호인 경우는 34%가 60세 이상의 老人이었다.⁴¹⁾ 또한 1991年 전국 생활보호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老人이 전체 생활 보호대상자의 14%였고 65세 이상 老人人口의 13%였다.⁴²⁾ 위의 두가지 통계에 의하면 老人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老人들이 겪는 경제적 빈곤의 危機는 老人들의 수입원을 살펴보면 더욱 절감하게 된다. 일본 총무처 장관 관방 老人 대책실에서 지난 1991年 한국 老人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韓國 老人들은 일을 해서 버는 경우가 37.4%이고, 자식들이 대주는 경우가 73.6%로 나타나고 있다.⁴³⁾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老人들도 인간이고 사회 생활을 하는 이상 최소한의 經濟的 뒷받침이 필요한데 ‘老人들은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거나 ‘老人이 돈 쓸 일이 있느냐’는 생각으로 돈을 적게 드리거나,⁴⁴⁾ 자녀들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이리저리 쪼개서 용돈을 드리

40) 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복지학』, 1997, p. 142.

41) 보건사회부, “91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분석”, 1991, p. 25.

42) 상계서, p. 26.

43) 장인협, 최성재 공저, 상계서 p. 150.

44) 박재간, “주머니가 빌 때 더 빨리 늙는다”, 『노장』, 1984년 1월호, p. 60.

지만 老父母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요즘 老人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폭이 넓어졌고 교통비, 사고비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老人들의 경제적 악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① 退職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돈을 벌고 그 수준에 맞는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퇴직 후에는 돈을 벌지 못하기에 계속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②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볼 수 있다. 1987년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만 실시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없어서 老後에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것이 대부분 韓國 老人들의 실태였다. 1988년부터 시행된 연금제도에 의해서 매월 지급 받는 기본 노령임금을 받는 것은 2008년 이후에 가능하게 될 것이고 특별 노령연금을 받게 되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⁴⁵⁾ 또한 우리 나라는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모든 老人에게 공적 부조를 하지 않고 현실성 있고 과학적인 원칙에 의한 최저 생활수준이 설정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③ 우리 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과외비가 포함된 교육비를 지출하고 결혼하고 분가하는 데도 사회의 허세적이고 체면 유지적인 풍습을 좇아 과다한 지출을 하는 사람이 많다. 60세 이상의 응답자 중 76.5%가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분가의 과다 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를 미처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다.⁴⁶⁾ ④ 그 외에도 너무 이른 정년제도와 질병,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가난한 老人은 危機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상태에서 찾

45) 장인협, 최성재 공저, 전계서, p. 153. 기본 노령 연금 혜택은 가입 20년 이후에 가능하나 15년-20년간 경우에 55세 이상에서 감액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6) 상계서, p. 154.

아오는 건강 상실은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부채질 하기도 한다. 또한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자식들에 대한 꾸념과 원망으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危機를 맞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해 老人들이 맞는 危機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다. 老人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도 시급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老人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貧困의 危機는 극복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2) 질병으로 인한 위기

老人들이 당하는 문제들은 현실참여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소외감이나 생활능력이 떨어져 용돈조차 얻어내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도 있거니와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문제는 老人들의 健康問題이다.

老人이 되면 누구나 허약과 질병의 문제에 봉착한다. 老人이란 늙은이를 말하는데 ‘늙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낡다’로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낡아졌다는 의미이다.⁴⁷⁾ 健康의 의미는 다양하고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고려하고 있는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健康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한 복리의 상태”라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건강 상태는 실제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판단하고 있다. 신체적 疾病의 유무

47) 김동배, “노인문제와 노인의 건강한 삶”, 『노년학을 배움시다』, (서울: 홍성사, 1993), p. 152.

48) 장인협, 최성재 공저, 전게서, p. 122.

와 기능의 정도에 의한 판단이다.⁴⁹⁾ 신체적 질병의 유무에 의한 건강의 정도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적인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기능적인 면에서의 건강은 사회적인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유용한 건강의 조작적 정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健康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측면으로 나누고 老人들이 겪는 健康問題와 그로 인한 危機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老人의 身體的인 疾病으로, ‘노령화는 그 자체가 질병이다’는 오래 전 서양의 터렌티우스가 老人의 질병에 관련해서 지적한 말이다. 우리 나라 老人들이 겪는 질병의 종류는 소위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 악성 신생물(암 종류), 심장병을 중심으로 당뇨, 중풍병, 기관지염 등이다.

둘째, 老人의 精神的인 疾病으로, 老人期는 한마디로 상실과 변화의 시기이다. 배우자, 친구, 동료의 상실, 지위나 경제적 상실, 비자발적 퇴직, 성격의 변화, 신체적 질병, 시간의 경과와 죽음에의 지각으로 인해 老人의 心理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정신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老人期の 정신적 질병은 그 원인이 신체적인 면에 있는 기질적 장애와 성격 및 생활의 경험과 관련되는 정서적인 면에 있는 기능적 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機能的 障礙로는 성격이 분열되고 외부 현실을 시험하여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며 부적합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충동에 대한 통제가 힘들 뿐만 아니라 망상과 환상에 빠지는 정신병(psychotic disorder), 생각이나 판단의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심한 왜곡이나 성격장애는 없고 무의식적인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고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경증(neurosis), 그리고

49) 장인협, 최성재 공저, 전계서, p. 123.

情 緒 的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정신 신체장애(psycho physiological disorder)이다. 그 다음, 氣 質 的 精神 障 碍는 뇌조직 기능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데 기억의 장애와 손상, 지적 기능 또는 이해력의 손상, 감정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증상을 보인다. 병의 종류로는 급성 노인성 뇌증후군, 만성 노인성 뇌증후군, 전노인성 치매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 질환 중 老人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소위 노망이라고 하는 치매현상이다. 이는 뇌세포가 감소하여 위축되면 세포속의 효소작용이 저하되고 그 결과 정신작용도 저하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지각이 둔해지고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감퇴되고 무의미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⁵⁰⁾

그러면 왜 老人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질병들이 危機로 작용하는 것일까?

첫째, 老人의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2~3배가 되고 입원 치료기간도 17세 이하의 3배가 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⁵¹⁾ 실제로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몸이 아프거나 고통을 느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老人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했고 저소득 老人들의 경우는 69.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²⁾

둘째, 간호의 문제가 따른다. 질병으로 투병중인 老人들의 대부분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老人,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老人,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는 老人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병에 걸린 老人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

50) 장인협, 최성재 공저, 전게서, pp. 134-138.

51) 상게서 p. 140.

52) 박재간, 임춘식, “한국 노인의 생활고 의식 구조에 관한 실태 조사”, 「노인 문제 연구 보고서」, 제5집, (서울: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 1983), p. 22.

셋째, 老人들이 앓는 질병은 대부분 만성병이고 비전염병이고 퇴행성이라는 문제이다. 老人들일수록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는 급성 질병은 줄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이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다. 전염병은 일시에 발생하여 일단 대책이 마련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만 비전염병인 성인병은 자신도 자각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치료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⁵³⁾

넷째, 老人의 질병은 複數의 질병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⁵⁴⁾

다섯째,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시설의 약 70%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특히 농촌 老人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외에도 老人의 질병을 단순히 노환이라고 치부하며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젊은이, 자녀들의 편견이 老人들로 하여금 질병을 안고 사회에서 이탈되도록 하는 큰 원인이 된다.

3) 퇴직(은퇴)으로 인한 위기

退職은 산업화 사회가 됨으로써 생겨난 제도이다. 우리 나라도 1960年代부터 산업화되면서부터 퇴직제도가 도입되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老人에게 있어 퇴직은 큰 위미를 가진다. 그것은 언제부터, 어떤 사람을 老人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는 현실에서 편의상 退職 年齡을 老人期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퇴직은 노화의 과정속에서 겪는 가장 큰 사건이고 老人期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를 살펴봄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退職은 일반적으로 고용상태의 어떤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이행을 중단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⁵⁵⁾ 퇴직의 연령에 대

53) 허 정, “노인질병 현실과 대책”, 「노인문제 현주소」, (중앙일보, 1984), p. 121.

54) 상계서, p. 124.

해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55세⁵⁶⁾, 공무원은 43세에서 61세로⁵⁷⁾ 규정하고 있다.

停年退職은 몇 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하는데 기계화, 자동화에 의한 노동력 수요의 감소, 생산기술과 지식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고령 노동자의 도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생산 조직의 관료화가 그 주요요인이다.⁵⁸⁾ 퇴직으로 인해 받은 영향은 퇴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폐지되는 美國이나 유럽에 비해 보편적으로 퇴직 연령이 55세로 정해진 우리 나라의 사회에서는 훨씬 더 부정적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55세 미만이었던 60년대의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평균수명이 70세를 웃도는 오늘의 상황에서 60세이하에서 은퇴를 해야한다는 것은 老人問題가 役割喪失과 經濟的 能力喪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큰 危機가 아닐 수 없다.⁵⁹⁾ 퇴직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은 수입에 대한 것으로 한국 사회 구조상 정년인 55세를 전후한 시기는 자녀들의 대학공부, 결혼 등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이므로 미쳐 老後準備를 못한 老人들에게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자기 일에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역할 상실감, 자아상실감을 주기도 한다.

55) 장인협, 최성재 공저, 전계서, p. 157.

서병숙, 전계서, p. 113.

퇴직에 대해 서병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직업활동으로부터 물러나는 제도로 규정하고 그것을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에 노년기를 퇴직의 시작으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다.

56) 최성재,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노인문제의 원인 및 진상”,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p. 50. 1988년 한국 경영자 총 협의회의 조사 통계.

57) 장인협, 최성재 공저, 전계서 p. 176. 1986년에 개정된 공무원 정년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6급이하가 58세, 기능직 6급이하는 43세에서 61세로 직능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8) 상계서, p. 159.

59) 안종만, “노년기에 대한 이해”, 「벵티스트」, 1994년 5, 6월.

停年退職이 주는 간접영향으로는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적절한 영양 상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체적인 건강을 상실케 하고 조기 퇴직이고 비자발적인 퇴직이 대부분인 우리 나라에서는 그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經濟的인 貧困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따라서 건전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없다.

4) 고독(소외)으로 인한 위기

현대 기술과학 시대에서 老人들만큼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계층은 없다. 가공할 사회의 급변과 다양화, 기계적 세분화와 전문화, 그리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정보는 젊은이들 마저도 끝이 없는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하며 자신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에서 老人들이 당하는 고독과 소외는 현대 사회의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⁶⁰⁾ 우리 나라의 老人들을 대상으로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늙어서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 살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는 이런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0.9%의 老人이 ‘인간은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보면 역할을 상실한 老人들의 疏外感이 老人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⁶¹⁾ 앞 항에서 상술한 경제적 빈곤,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편, 퇴직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경제력의 상실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및 대인관계의 약화 등으로 인해 老人들은 심한 소외감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 즉 老

60) 허 건, “기술과학시대의 인간소외”, 「신앙세계」, 1994년 6월, p. 21.

61) 손재철,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p. 29.

人期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수행해온 여러 가지 역할들이 떨어져 나갈 때 역할부재에서 오는 심한 좌절감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 최근 老人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외로 인한 고독, 불안을 거의 대부분의 老人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1>가 같이 60세 이상의 남녀 老人 637명을 대상으로 老人의 소외와 고독에 관해 조사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²⁾

<表 2-1> 서울시내 60세 이상 노인의 소외·고독에 관한 조사

성별 및 거주별 고독 및 불안감 정도	거 주 노 인			시설노인
	남	여	계	
자주 느낀다	45.5%	38.2%	43.3%	87.8%
느끼지 않는 편이다	38.3%	42.8%	39.5%	6.1%
전혀 느끼지 않는다	16.2%	19.0%	17.2%	6.1%
계	100% (281)	100% (126)	100% (407)	100% (141)

자료: 정태기, 『위기 목회상담』, (서울: 기독교 서회, 1993), p. 222.

老人들은 수십년에 걸쳐 지속해온 관계를 하나 둘씩 상실하는 데서 疏外와 孤獨을 경험하게 된다. 老人들이 당하는 소외와 고독은 우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심화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老人은 완고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에서 老人과 대등한 대화를 회피한다. 老人은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老人에게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老人은 약하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老人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기 쉽다. 老人은 성적

62) 정태기, 전제서, p. 222.

욕구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老人의 성적 관심을 금기시 한다.⁶³⁾ 高齡이 될 수록 소외와 고독은 심화되는데 그것은 고령이 될 수록 배우자가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 동료들이 사망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져서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老人들이 견디기 힘든 疏外와 孤獨은 가정에서의 소외이다.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老人들이 ‘자신이 불편하고’(42.5%), ‘며느리가 불편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35.2%) 별거를 원하는 비율이 77.7%에 달하고 있다.⁶⁴⁾ 이는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핵가족화로 인해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아들마저도 결혼한 후에는 獨立해서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가면서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다.⁶⁵⁾

오늘날의 韓國 사회는 점차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장남과의 동거는 줄어들고 차남이하의 다른 아들, 또는 딸과 동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현두일의 조사를 보면 자체 조사 대상 老人 중에서 독거하는 老人은 5.8%, 부부 가구, 6.1%, 미혼의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18.4%, 그리고 장자 부부와 동거하는 가구 54.2%, 장남외의 자부부와 동거하는 가구 10.8%, 딸(사위)내외와 동거하는 가구 1.8%, 손부부와 동거하는 가구가 2.2%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여 보면 老人 단신가구와 부부가구 및 미혼 자녀와의 동거 가구는 모두 합치면 30.3%로 우리 나라 老人의 별거지향 추세를 어느 정도 암시해 준다.⁶⁶⁾

63) 김동배, 전계서, p. 156.

64) 박재간, 임춘식, 전계서, p. 5

65) 오늘의 현실에서 가정내에서 노인들이 당하는 소외와 고독의 실제적인 사례는 윤춘정, “노인의 전화 이야기”, 「살림지」, 1994년 9월호를 보면 현실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家族構造의 변화는 미래에 있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래의 가족유형은 첫째, 가족의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기능들은 축소되거나 사회의 다른 제도로 이전될 것이다. 둘째, 가족원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성역할이 완화되고 역할의 융통성은 증대될 것이다. 넷째, 社會保障制度의 확대로 老人독거가 늘어날 것이다.⁶⁷⁾

老人들이 느끼는 소외와 고독은 첨단 과학 시대의 도래 등으로 시대적 급변과 老人 壽命 증대로 인한 老人人口의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老人들의 소외와 고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老人夫婦 중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홀로 남아 여생을 보내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老人들이 당하는 소외와 고독의 危機는 한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사회보장 등의 국가적 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老人을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사회의 의식이 문제이다.

5) 죽음(배우자와의 사별)으로 인한 위기

인간은 모두 종국에 가서는 죽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 때 자신의 생존을 기쁘게 느끼도록 하는 경향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다. 퀴블러 로쓰(Elizabeth Kubler-Ross)는 “아직도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며 비록 우리가 여러 면에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듯 하면서도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인류의 공통의 것으로 남아 있다”⁶⁸⁾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특별히 老人期에 접어드는 老人들에게 있어서

66) 현두일, “한국 가족과 노인문제”, 「기독교사상」, 1992년 5월, p. 58.

67) 장인협, 최성재 공저, 전계서 p. 203-204.

68) Elizabeth Kubler-Ross, 「인간의 죽음」, 성 염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8), pp. 18-19.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기회는 많아지고 고령자일수록 죽음의 공포를 더 자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젊은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게될 때 가지는 죽음의 공포에 비해 老人期에는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⁶⁹⁾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해도 老人들의 삶에 있어 죽음의 공포는 건강한 老人 삶을 가로막는 큰 危機가 되며 또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사별은 상실에 대한 분노와 고인의 생존시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고독, 우울, 다양한 고통과 식욕부진 등을 불러 일으켜 정상적인 삶을 위협한다. 죽음과 배우자 사별로 인한 危機는 ‘臨終과 죽음을 금기의 화제’로 덮어 두려는 경향 때문에 이 마지막 과정처리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⁷⁰⁾ 죽음은 삶의 과정속에 공존하는 한 부분이다.

죽음에 대해 老人들은 하나의 금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죽음과 자신의 붕괴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지나온 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성격을 재조직, 재통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교적 순수하게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인정하는 老人들이 있는 반면에 과거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었다는 느낌을 갖은 채 늙음을 슬퍼하고 후회하며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⁷¹⁾ 또한 삶의 부당함이나 낭비에 분노를 느끼거나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미친 듯이 흥분, 냉담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⁷²⁾

죽음을 앞둔 이들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靈的 요구를 한다. 첫째, 사랑받고 싶어하는 요구를 한다.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싶어

69) 1961년의 Kastenbaum의 연구, D. B. Bromly, 전게서, p. 301.

70) 상게서, p. 272.

71) 윤 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1993), p. 346.

72) D. B. Bromly, 상게서, p. 284.

한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절대자의 사랑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둘째, 왜 죽어야 하는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요구를 한다. 셋째, 죄에 대한 용서의 요구로 내가 살아온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요구이다. 넷째, 죽는 순간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마지막까지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요구이다. 다섯째, 죽음을 앞둔 이는 자신과 타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⁷³⁾

흔히 人口統計를 볼 때 만 65세~70세의 남자 가운데 80%가 아내가 있는데 반하여 만 65세~70세의 여자 가운데 오직 40%만이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것을 보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危機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다.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孤獨과 憂鬱症은 보편적 감정이고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얼마간은 감정이 더 격렬해진다. 비탄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비탄을 겪는 과정은 길어진다. 사별후의 격렬한 감정은 몸에도 영향을 끼쳐 아픔, 고통, 식욕부족을 호소케 한다.⁷⁴⁾ 또한 死別을 한 유가족의 적응도 임종자의 단계와 비슷하다. 유가족들은 부정, 분노,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거쳐 사별을 수용하고 그것에 적응하게 된다. 正常的인 死別反應은 앞의 단계를 거치며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만 비정상적인 사별반응은 그렇지 않다. 非正常的인 死別反應에 대해 린드만은 지나친 행동, 정신적, 신체적 질병, 관계부정,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 자살의지 그리고 피해망상 등의 반응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⁷⁵⁾ 배우자 상실자가 당면하는 또 하나의 아픔은 고독감

73) 이대건,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봉사”, 「기독교 교육」, 1990년 10월호, p. 19.

74) D. B. Bromly, 전제서, p. 306.

75) 이재만, “사별에 대한 위기상담”,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 75-76.

의 문제이다. 老夫婦가 오랜 시간 동안 한 몸처럼 의존해 왔기에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터놓았던 대화의 상대자를 잃게 되기에 더욱 침묵을 지키며 냉담해지기도 한다.

老人들에게 있어 죽음의 도래와 배우자의 상실은 분명 커다란 危機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와 마음 가짐으로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고통을 통한 성장에 대해 경건주의 신학자 윌리엄스(Williams)는 첫째, 고통을 통해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게 되고 둘째,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셋째, 고통은 우리의 인간친교를 증진시키고 넷째, 고통은 인간의 아픔을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할 수 있다고 한다.⁷⁶⁾

죽음과 사별로 인한 고통은 우리 인간의 삶에 뗄 수 없는 생의 일부이다.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극복하느냐이다. 이를 위해 시작된 호스피스(Hospice Care)는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호스피스는 특히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肉體的인 문제 뿐만 아니라 情緒的, 靈的 문제를 전인적으로 다루며 사랑으로 돌봐주는 행위를 말한다.⁷⁷⁾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는 다섯가지 哲學的 原則을 들고 있다.⁷⁸⁾ 첫째, 임종은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다. 둘째, 통증조절이 치료의 목적이다. 셋째, 환자와 환자의 가까운 이들이 치유의 한 단위로 구성된다. 넷째, 치료의 범위는 사별로 인한 남은 가족의 지지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상호훈련된 팀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가장 잘 도울수 있도록

76) 정태기, “아픔과 목회상담”, 「기독교 사상」, 1983년 9월호, pp. 113-114.

77) 한동윤, 「호스피스」, (서울: 말씀과 만남, 1993), p. 96.

78) 상계서, p. 113.

해야 한다.

호스피스⁷⁹⁾의 기본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죽음을 하나의 지나가는過程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스피스의 방법론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임을 나타내고 있다(엡 4:16).

나. 노년기 위기의 특징

오늘날 老人들이 당하는 危機는 크게 사회변화와 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60年代 이후 사회가 현대화함에 따라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삼았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老人들은 직장에서는 무능력자로, 점점 핵가족화 되어 가는 가족내에서는 가사결정권을 상실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다. 신체적으로 인생의 마지막단계를 접어들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신체적 노화는 만성적이고 퇴행성인 老人病을 유발하여 사회생활,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老人들로 하여금 스스로 위축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老人들로 하여금 危機感을 주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다. 바로 전 시대인 중년기에는 가장 왕성한 경제력을 소유했기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당당할 수 있었지만 停年退職으로 인한 경제적 수입의 감소는 사회생활의 범위가 좁아지고 가정내에서의 주도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건강을 잃어도 마음놓고 치료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몰아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젊은 신체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료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 老人의 問題는 오늘의 老人期에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危機이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짧아진 정년퇴직, 그로인해 오

79) 호스피스에 대하여 보충하면 어원적으로 라틴어의 ‘Hospes’에 기원을 둔 것으로 접대하는 사람(Host)과 손님(guest)의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늘의 老人들은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들을 손실시킨다는 사실에 조롱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오는 상실감은 老人들을 더욱 외롭게 한다.

老人들이 당하는 危機에 한 몫을 더하는 것은 老人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고하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이다.

그러므로 老年期 危機의 해결은 누구나 老人이 된다는 생각과 함께 老人이 어른으로 대접받는 가치관의 변화를 기본으로 高齡임에도 아직은 젊은 신체를 가진 대부분의 老人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어 경제력을 확보하며 역할 수행의 보람을 느끼고 건강한 자아통합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제 3 장 老人危機 克服을 위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實態 分析

제 1 절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類型

1. 教會의 자원

가. 教會의 사명과 역할

教會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教會의 모범은 말씀 宣布(케리그마, Kerigma), 말씀의 敎育(디다케, Didake), 말씀의 親交(코이노이아, Koinoia), 그리고 말씀의 奉仕(디아코니아, Diakonia)의 네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社會奉仕와 관련된 사역은 '디아코니아' 즉 봉사이다.

“教會는 사회 안에 존재하며 또한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⁸⁰⁾라고 하며 이원규 교수는 教會와 社會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教會가 社會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교인들은 신앙인이며 동시에 사회의 構成員이라는 것과 教會는 신앙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社會制度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教會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教會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教會와 社會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教會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教會의 본

80) 이원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의 조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p. 151.

질이 社會奉仕와 社會參與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하면 敎會의 본질적 사명이 奉仕로만 국한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기존의 韓國敎會들은 사회봉사활동에는 다소 소극적이었고 敎會의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⁸¹⁾ 하지만 여전히 敎會의 사회에 대한 역할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고 福祉事業과 관련해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敎會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단순한 이유만이 아니라 敎會가 사회 속에서 담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성경적 표현이 이를 더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福祉事業과 관련하여서 敎會의 역할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족분을 메우는 잔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삼 교수는 敎會의 社會奉仕活動과 관련하여서 敎會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한 삶을 누리도록 행복권, 복지권의 안전망 장치를 갖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몇 개의 안전망을 허락해 주셨다. 제1의 안전망은 본인 자신의 능력이다. 제2의 안전망은 가정이다. 제3의 안전망은 국가이다. 제4의 안전망은 민간복지단체이다. 여기에서 민간단체, 특히 종교단체가 분담하여 제4의 복지안전망을 펴고 제 1, 2, 3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떨어져 내려 온 불우한 시민을 도와야 한다. 이렇듯 敎會는 모든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 형제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때 그 지역사회에

81) 이원규, 전제서, pp. 158-159. 이원규 교수는 한국교회가 사회봉사활동에 소극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의 성향 때문이다. 둘째,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주로 대형화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신앙구조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개인복음, 개인구원적인 신앙 전통이 강했다는 점도 교회의 봉사적 기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서 복음의 능력이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될 것이라고 본다.”⁸²⁾라고 하면서 서비스전달체계에서 벗어나는 부문에 대해 教會의 役割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教會는 사회 속에 존재하며 그 안에서 教會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福祉事業과 관련되어서 教會의 역할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補充的(supplementary)이며, 殘餘的(residual)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나. 教會의 자원

教會에서 老人福祉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教會는 무한한 資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시설 자원, 그리고 조직 자원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人的 資源面에서 教會의 성도들은 전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분야의 專門家(법률인, 의료인, 경제인, 기술자, 교사 등)와 일반 非專門家(학생, 주부 등)로 구분된다. 이런 인력은 教會에서 老人福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老人施設의 법인화과정에 법적 자문, 老人學校에서의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계획의 수립 등)이나 비전문적인 영역(자원봉사자의 역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둘째, 財政 資源面에서 老人福祉에 기여할 수 있다. 教會의 경우 지역적인 편차가 나타나지만 91年度 기준 7개 都市教會의 본 재정 연말 결산액을 보면 3천 만원 이상인 教會가 38.2%이고, 그 가운데 1억원

82) 박종삼,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봉사”, 『사회봉사와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pp. 181-182.

이상인 敎會가 14.9%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⁸³⁾ 이런 재정 자원의 규모는 敎會의 크기에 따라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여기에 老人福祉 서비스에 대한 의지만 더해진다면 個敎會의 특성인 탄력적 대응으로 老人福祉 서비스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施設 資源面에서 보면 敎會는 敎會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建物(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주일 이외의 시간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敎會의 실정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비판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을 老人福祉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새로운 施設投資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組織 資源面에서 敎會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老人福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역회나 각종 宣敎會는 이미 基本的인 조직과 體系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여전도회는 老人의 특성에 가장 걸맞는 敎會의 조직체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敎會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의 動機가 다른 조직체보다 강한 곳이다. 그러나 敎會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박종삼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⁸⁴⁾ 첫째, 動機

83)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0), p. 63.

84) 박종삼, 전게서 p. 186.

(Motivation)의 誘發이다. 둘째, 能力(Capacity)의 訓練이다. 셋째, 期會(Opportunity)의 創出이다. 곧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내는 일이다.

2. 교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유형

“老人福祉 서비스에서는 비록 지역사회, 집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老人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지적, 보조적, 대리적 차원으로 범주화되어질 수 있다. 이런 범주화는 서로간에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때때로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⁸⁵⁾라고 Alfred Kadushine은 말하고 있다. 이런 그의 범주화는 老人福祉 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20세기 중반기에서 福祉活動이 사회적 정부적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19世紀처럼 종교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없게 되었다. 다만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복지 서비스에 병행하여 補助的 서비스(supportive service), 補完的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를 제공하였고 아직 사회에서 실시를 안하거나 하기를 거부하는 福祉分野를 맡아 창의적으로 代理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를 제공하였다”라고 박종삼은 Alfred Kadushine의 서비스의 범주를 확대시켜서 주장했다고 보여진다.⁸⁶⁾

그리고 박종삼은 1994年 5月 서울신학대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의 춘

85) Alfred Kadushine, *Child Welfare Services*, (N. Y. : Macmillan, 1980), p. 25.

86) 박종삼, “민간자원동원과 종교사회복지의 과제”, 「전국사회복지대회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1), p. 163.

계강좌에서 발표한 “韓國敎會의 사회봉사관 모델”이란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敎會의 사회봉사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⁸⁷⁾

첫째 모형은 敎會가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시설을 갖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모형이다.

둘째 모형은 敎會자체의 여러 형태의 자원들(시설, 인적자원, 재정, 조직 등)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모형이다.

셋째 모형은 敎會가 직접 사회봉사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선교적 책임과 사회요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동기화하고, 훈련시키고, 봉사할 기회를 창출하여 제시해 주는 모형이다.

따라서 본 論文은 위와 같은 3가지 유형의 제시를 통해서 敎會 老人福祉 서비스의 차원에 적용시켜서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크게 敎會의 社會奉仕 모델을 창출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敎會에서 처음으로 老人福祉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그 시행착오나 예산적, 시간적 낭비를 줄여주고, 기존의 老人福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敎會에게는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老人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7) 박종삼, “한국교회의 사회봉사관 모델”, 서울신학대 춘계공개강좌, 1994.

제 2 절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運營 實態 分析

1. 교회내 노인시설 운영 실태

가. 노인시설 양로원의 프로그램

우리 나라의 老人福祉 시설은 先가정보호, 後사회보호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앞으로 급진적인 성장은 예상되지 않더라도 현재 養老院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핵가족화의 추세와 전통적인 부양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무료·유료 양로시설의 증가 및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天主教, 改新教 모두 老人施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계 養老院의 역사와 현황을 천주교와 개신교로 구분하여 관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주교의 양로원

天主教에 대한 박해가 거의 종식되고 教會가 안정을 찾게될 즈음에 教會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老衰者와 病者 그리고 孤兒 등에 대한 구제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미 1880年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던 블랑주교는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모다 고아사업에 착수했고, 1889년에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현재)에 큰 기와집 한채를 마련하여 의지할 곳 없는 男女老人들을 모아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양로원이 되었다. 여기에 수용된 老人의 수가 40名에 이르렀는데 20名の 천주교 신자들이 인근에 설치된 고아원과 함께 老人들의 시중을 들었다.⁸⁸⁾

88) 김명규,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목회의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

1894年 이후 한때 양로원이 폐지되었으나 서울 천주교 양로원이 부활되어 파리 외방전교회 운영하에 유지되었다. 1920年代에는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韓國에 진출하여 관서·해서지방의 천주교 전교활동을 담당하며 여러곳에 양로원, 평북 의주에 의주천주교양로원, 1933年 11월에 평남 진남포에 진남포양로원 등 6개의 양로원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그밖에 1921年 서울에서 노남기 대주교가 설립하였고 그 후 경기도 부천으로 옮겨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성가양로원을 비롯하여 해방 후에 설립된 대표적 養老院으로 성심원(1968. 8; 청주), 쉼밭원(1949. 1. 3; 957 충남 논산), 아심원성가양로원(1957. 8. 8; 경북 칠곡) 등이 현재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老人福祉 施設이다.⁸⁹⁾

2) 개신교의 양로원

改新敎 계통이 운영해 온 양로원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보다는 韓國人 사회사업가들의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 많음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평북 선천의 창신양로원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유력한 사회운동가였던 이창석 장로가 1918年 12월 憲 설립했다. 또 하나의 기독교 민간 양로원은 의사인 오금선 박사가 시작한 경성양로원으로, 1931년 憲 의지할 곳 없는 老人들의 老後對策을 위해 서대문 옥천동 고아원 근처에 양로원을 설립하고 그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 후에 이윤영이 운영하면서 세검정 삼각산 밑으로 이전하여 그 명칭도 청운양로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선교사들에 의한 養老院사업은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의 활약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함흥에서 기와집 한채를 구입하여 의지할 곳 없는

위논문, 1990, p. 70.

89) 정인찬,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4), p. 50.

女子老人 4名을 수용하고, 1935년에는 건물 한채를 더 마련하여 7名을 추가로 수용했다.

해방이후 각 교단에서도 은퇴교역자들의 안식을 위한 양로원시설에 관심을 시작하여 감리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다. 1948年 10月 기감 여신도회의 주선으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은퇴여교역자 수용기관인 안식관을 설립한데 이어, 1951年 10월 肅寧 서상윤이 경남 마산시 상남동에 마산양로원(수용인원 49명)을 설립하고, 1954年 2月에는 이재억이 경기도 여주읍 안양리에 성낙원(수용인원 17명) 등을 설립했다. 이어 1960年代에는 인천 주안에 설립되어 새로운 시설로 발전하였다.

장로교회의 은퇴교역자 시설로는 1982年 11月 11일에 준공하여 봉헌된 안양원로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1954년에 설립되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대한예수장로교회(통합)총회 자선사업재단에 의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15-3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888평의 초현대식 건물로 건축되어 100명 이상의 수용능력을 갖춘 손색없는 은퇴교역자 주거시설이다.⁹⁰⁾

養老院의 牧會는 우선 施設老人들이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老人들이 죽기전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養老院의 프로그램 중에는 예배, 성경공부, 찬양, 기도를 필수적으로 넣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외적인 활동으로 지역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가로수 관리 및 청소를 하여, 사회의 도움만을 받는 양로원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도 주는 양로원의 인상을 배려하기도 한다.

또한 會報도 발간하여 다른 양로원들과 유대를 맺고 서로 정보를 교

90) 정인찬, 전게서, p. 51.

환하며, 더 나아가서 敎會의 老人들에게 양로원 생활을 소개해 주고 老後生活에 대하여 상의하여 보람있는 생활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여, 老人生活을 개선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⁹¹⁾

<表 3-1> 천주교 운영의 양로원 현황

교 구	양 로 원	수용인원	교 구	양 로 원	수용인원
대전교구	1	29	청주교구	1	86
인천교구	2	95	마산교구	1	60
대전대교구	3	183	전주교구	1	?
부산교구	1	10	(합 계)	10	462+?

자료: 기독교백과사전 11권, 1984, p. 50.

91) 박양조, “노인목회의 방향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 76-79.

<表 3-2> 개신교 운영의 양로원 현황

양로원명	설립년월일	소재지	설립자	원장
청운양로원	1927. 8. 1	서울	이윤병	조동순
신방애양로원	1934. 12. 23	대구	한형세	한우영
양락경로원	1652. 11. 12	경기 광주	한경직	임종택
재건사양로원	1973. 3. 10	부산	주상수	주재은
애광양로원	1951. 3. 1	부산	배삼술	배창주
인천양로원	1957. 5. 31	인천	안인애	안순애
구세군양로원	1966. 6. 1	경기 시흥	이환권	유예필
마산양로원	1950. 3. 17	마산	서상윤	서영승
귀화양로원	1954. 4. 1	군산	김필남	김필남
애린양로원	1919. 1. 16	전북 김제	한상룡	한국택
천혜양로원	1952. 7. 13	광주	강순명	장신애
이일성로원	1959. 5.	광주	이정희	이정희
영락양로원	1965. 3. 20	전남 장성	임영한	임영한
제주양로원	1957. 4. 13	제주	강성옥	강성옥
경북성로원	1962. 6. 10	경북 달성	이만호	정상영
복음양로원	1963.	경북 칠곡	김정오	정성분
안양양로원	1982. 11. 11	경기 안양	고현봉	유호준
이천하나원	1985. 4. 1	경기 이천	한영재	한영재

자료: 기독교백과사전 11권, 1984, p. 51.

나. 노인시설 운영 실태

敎會內 老人施設 운영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해 1995年 12月 숭실대 社會事業學科의 서경석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敎會를 대상으로 老人施設 運營 4개와 老人學校 運營 47개, 自願奉仕 敎會 4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老人施設 內 이용자 시설관계자들의 老人施設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敎會의 일반적 현황에서 敎會의 역사는 36년 이상이 75%로 가장 많았고, 성도수는 2,001명 이상(50%), 1,001~2,000명(25%)의 순으로 나타났고,

예산은 11억 이상(50%), 6~10억(25%)의 순으로 나타났고, 敎會의 부대시설로는 전용교육관(27%), 교회묘지(27%), 수양관·기도원(18%), 사회봉사관(18%)을 갖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대도시(50%)가 가장 많았다.⁹²⁾

법인의 역사는 11~20년(50%), 6~10년(25%) 등으로 법인화의 설립과 법인운영의 목표 중에서 법인의 설립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목회자(75%)가 가장 많았고, 이에 반해서 법인화의 운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당회원(7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운영의 목표는 이웃사랑의 실천(66%), 지역사회복지 향상(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⁹³⁾

법인화 설립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행정관청의 까다로운 허가조건과 절차(50%), 예산의 부족(16%), 사회봉사의식의 부족(16%), 전문지식의 부족(16%)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어려운 점으로는 재정부족(18.2%), 수혜자의 관리문제(18.2%), 직원부족(17%), 시설과 공간의 부족(17%), 자원봉사자의 부족(17%) 등을 꼽고 있다.⁹⁴⁾

법인의 예산은 4천 2백만원에서 14억원까지 편차가 심하고, 그러나 老人 프로그램의 豫算은 2천 2백만원에서 3억원으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2~3억이 전체 응답자의 3개의 敎會를 차지하고 있다. 1年 豫算 중에서 정부 지원금은 51~60%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75%)가 가장 많았는데, 이에 반해서 자체 부담은 41~50%의 경우(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체 예산의 동원방법으로는 敎會豫算에서 얼마를 책정한다(50%), 개인 및 단체의 후원(30%)의 순

92) 서경석, “한국 교회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66.

93) 상계서, p. 66.

94) 상계서, p. 67.

으로 나타났다.⁹⁵⁾

법인인 老人施設의 프로그램의 실시현황은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폭 넓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무의탁 老人(50%)이 가장 많았고, 이용조건도 무의탁 노인(75%)이 우선 순위였다. 이용자의 수는 4개의 敎會가 15명, 50명, 100명, 3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여자의 비율이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층은 70대가 가장 많았다. 老人과 법인 시설이 연결되는 경로는 행정관청의 소개(33%), 교인들의 소개(25%)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75%)으로 나타났다.⁹⁶⁾

전체 自願奉仕者의 수는 4개의 응답에서 각각 10명, 40명, 50명, 380명으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용자의 수와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비율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敎會의 자원봉사자의 수는 각각 2명, 35명, 15명, 150명으로 나타났다.

職員은 평균 12명이며, 교육적 배경은 사회사업(44%)과 신학(4%)보다 기타 비전공(50%)이 더 많았다.

地域社會와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지역의 기관은 老人관련기관(33%), 학교(33%)였다.⁹⁷⁾

95) 서경석, 전제서, p. 67.

96) 상제서, p. 67.

97) 상제서, p. 67.

2. 교회내 노인학교 운영 실태

가. 교회내 노인학교 설치

韓國에서 老人學校가 처음 설립된 것은 1972年 종로 태화관에 자리 잡은 서울 평생교육원이고 1973년에는 서울 명동 카톨릭 여학생회관에서 개강한 덕명의숙이며, 뒤이어 한국성인 교육회, 대한노인회, 적십자 장년 봉사회, 한국부인회, 청년회의소, 일부 초, 중, 고, 대학부설 老人學校, 그리고 지역사회 독지가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각 敎會와 佛敎界 단체에서도 老人學校 운영에 착수하므로써 이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 韓國敎會의 대표적인 老人學校는 정릉敎會 老人學校와 도립敎會 老人學校, 연동敎會 老人學校, 묘동敎會 老人學校 등이 있다.

현재 敎會內에 老人學校나 老人부가 조직된 敎會는 전국에 150여개 이상된다. 앞으로 老人學校의 숫자는 韓國敎會의 老人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급속히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데, 그러나 老人學校 運營과 老人프로그램에 대한 발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⁹⁸⁾

아울러 敎會의 老人敎育은 흔히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정도에 치우치고 있으며, 老人들의 경우는 장년부라는 명칭아래 일괄적으로敎育시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敎會學校에 老人大學이나 老人부를 따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敎會는 거의 없다. 한 예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은 약 5,000 敎會가 있는데 그중에서 10 敎會 정도에 불과하다.⁹⁹⁾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교회들이 老人敎育에 관심을 갖고 설립

98) 유희선, “교회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46.

99)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참여 방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p. 127.

획을 구상하거나 설립하고 있다.¹⁰⁰⁾ 그러나 몇몇의 教會를 제외하고는 예배와 성경공부, 친교시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老人教育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¹⁾

教會内に 경로대학을 설립하여 약 20년간 운영해온 J教會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設立趣旨로 사람마다 고령에 이르게되면 느끼게 되는 고독과 소외감을 덜어드리며 발전하는 사회모습과 변천하는 생활에 적응하여 새 세대의 젊은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저 평생교육을 이념으로 삼아 각 분야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교양을 높여 존경받는 老人상을 정립하여 새로운 벼를 많이 사귀어 새 삶의 패기에 찬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된 여생을 보내게 하기 위하여 1975. 3. 1. 설립하고,

② 教育內容으로는 설립취지에 따라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각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고, 명승고적, 사관학교, 산업체 심방, 국립묘지 참배 등을 통하여 사회상을 익히고 있으며, 건강관리실 설치, 학생들의 건강상담에 응하여 체력장을 작성하고 체력과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일선장병, 양노원, 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삶의 보람을 갖게 하고, 불우청소년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회를 조직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며,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확고한 신념으로 살도록 권장하고, 과거의 豊富한 경험과 식견을 살려 집단 토론회를 갖도록 하며, 예절교육과 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장려하고 있다.

③ 授業年限은 1년으로, 豫算은 교회보조 600만원 및 회비 1인 월

100) 양서승, “한국교회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문제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 54-55.

101) 상계서, p. 44.

1,000원¹⁰²⁾ 정도로 운영 유지되고 있다.

나. 교회내 노인학교 운영 실태

1995年 송실대 서경석이 老人學校 運營 敎會 47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老人學校의 역사는 6~10년(46%)으로 그 역사가 敎會의 역사보다는 매우 짧았다.

老人學校의 설립에 목회자가 가장 많은 영향(86%)을 끼쳤으며, 기관을 운영하는 목표는 이웃사랑의 실천(38%), 지역사회의 복지향상(27%)을 들었고, 준비상으로는 老人學校와 관련된 정보수집(41%), 예산안 수립(22%), 敎會와 地域의 욕구조사(24%)를 꼽았다.¹⁰³⁾

老人學校 設立의 애로사항은 교인의 사회봉사의식의 부족(34%), 예산과 전문지식의 부족(각각 27%) 등이었고, 현재의 어려움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부족(30%), 전문가의 부족(27%), 재정부족(17%), 시설과 공간의 부족(14%) 등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상의 어려움으로는 老人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족(41%)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담당자의 전문지식의 부족(29%), 예산의 부족(18%)을 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회차원에서 해결한다(5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전문기관에 상담하거나 의뢰한다(23%)가 있었다.

老人學校의 豫算은 천백만원~천오백만원(34%), 육백~천만원(20%), 삼백~오백만원(20%)이었으며, 예산의 동원방법은 敎會豫算에서 책정한다(45%), 개인 및 단체의 후원(33%)의 순이었다.

프로그램의 현황은 급식, 의료, 교육, 오락, 경로잔치, 상담, 효도관광 등 老人學校와 관련해서 실시하기 용이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나, 부업

102) 대담 김성식, “정능경노대학 운영에 관하여”, 1990. 10. 20.

103) 서경석, 전제서, p. 68.

알선, 숙식, 신문, 책 읽어주기, 산책동행, 안마, 나들이 동행, 행정업무 대행, 병원 안내하기 등의 專門的인 技術과 많은 豫算이 드는 것과 자원봉사활동(재가복지)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의 실시는 적었다.¹⁰⁴⁾

이용대상자는 지역의 老人(73%)이 가장 많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자격·무심사, 즉 무조건이었으며, 이용대상자의 수는 51~100명(50%), 101~200명(43%)으로 조사되었고, 여자의 비율이 79%로 남자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남녀의 연령분포는 70대(79%)가 대부분이었다.

老人學校와 관련된 평균 직원의 수는 2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社會事業(福祉)을 전공한 자는 0.4명에 불과했다. 자원봉사자의 수는 10명 이하(46%), 11~20명(54%)으로 조사되었다. 老人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 여부에서는 85%가 받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노회나 총회(47%)로 가장 많았다.

地域社會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79%)이었으며,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기관은 노인관련기관(35%), 기타(동회와 구청)(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¹⁰⁵⁾

3. 교회내 자원봉사 운영 실태

1995年 숭실대 서경석이 教會內 老人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教會 4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自願奉仕活動을 하는 教會의 역사는 36년 이상(40%), 6~15년(30%), 16~25년

104) 서경석, 전제서, p. 68.

105) 상제서, p. 69.

(20%)으로 조사되었다. 성도의 수는 301~500명(30%), 101~300명(30%)의 순으로 나타났고, 예산도 2억이하(55%), 3~5억(21%), 6~10억(10%) 등의 규모였으며, 부대시설로는 교육관(58%), 교회묘지와 사회봉사관(각각 17%), 수양관(8%)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리적 위치는 중소도시(40%), 농·어촌(40%), 대도시(20%)인데 비해서 대도시(20%)는 적었다.¹⁰⁶⁾

自願奉仕 활동을 시작한 지는 5년이하(70%)로 그 역사가 길지 않았다. 자원봉사 활동의 애로사항은 전문적 지식의 부족(27%), 사회봉사의식의 부족(20%), 예산의 부족(27%)을 들고 있다. 프로그램의 현황은 금식,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의 프로그램은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老人學校를 운영하고 있는 教會보다는 세탁, 방문안, 간단한 진료, 생활용품 전달, 용돈지원 등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 老人大學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4개나 되어서 老人福祉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老人施設과 自願奉仕 활동이 연결되는 경로는 老人施設(양로원, 경로당)의 요청(38%), 행정관청의 소개(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⁷⁾

방문횟수는 1~2회(40%), 3~5회(40%) 정도였으며, 교역자의 후원이나 지지 정도는 조금 적극적(70%)이었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教會의 부서는 여전도회(77%)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로는 教會의 본질적 사명(10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自願奉仕 활동에 教會 안의 전문가(사회사업가, 간호사 등)의 활용과 개입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 활동의 결정은 당회(38%), 각 부서별(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

106) 서경석, 전게서, p. 68.

107) 상게서, p. 68.

리자는 각 부서의 장(70%)이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원 봉사 활동이 教會에 미치는 영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67%), 지역사회의 인식이 좋아진다고(25%)로 조사되었다.¹⁰⁸⁾

自願奉仕 活動과 관련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70%)가 많았다. 받고 있는 경우(30%)는 教會의 강습회(33%), 노회나 총회(33%), 사회복지연수원(17%), 지역사회복지관(17%) 등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地域社會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지역사회 내의 기관 중에서는 노인관련기관(70%), 학교(15%), 지역사회복지관(15%)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¹⁰⁹⁾

4. 운영실태 분석 결과

1995년 승실대 서경석이 教會를 대상으로 ① 老人施設 運營, ② 老人學校 運營, ③ 自願奉仕 運營의 3개 부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¹⁰⁾

가. 프로그램 구성 운영

老人施設의 경우는 위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폭넓게 실시하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시설인 이유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발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108) 서경석, 전계서, p. 69.

109) 상계서, p. 70.

110) 상계서, p. 70.

老人教育의 경우는 老人學校와 관련하여서 실시하기에 용인한 급식, 의료, 교육, 오락, 경로잔치, 상담, 효도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업알선, 숙식, 신문, 책 읽어주기, 산책동행, 안마, 나들이 동행, 병원 수속대행, 의부모·의형제 맺기 등의 전문적인 기술과 노력과 정성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自願奉仕 運營의 경우는 급식, 교육,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老人教育의 경우보다는 세탁, 병문안, 간단한 진료, 생활용품 전달, 용돈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老人施設과 老人教育의 경우 보다는 현저하게 프로그램의 실시가 적다. 그러나 老人大學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40%나 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최근 老人福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분석된다.¹¹¹⁾

전체적으로 보면, 老人施設, 老人教育, 自願奉仕 運營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급식(79%), 의료/보건(52%), 교육/훈련(69%), 오락/휴식(55%), 상담(95%), 老人대학(72%), 경로잔치(69%), 효도관광(66%) 등 老人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敎會가 특별한 전문성이나 많은 예산을 가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情緒的 結緣, 그리고 老人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행정업무 등 좀 까다롭고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 즉 직업알선, 숙식, 신문, 책 읽어주기, 의무실, 안마, 간담부름, 행정업무 대행, 나들이 동

111) 서경석, 전게서, p. 70.

행, 의부모·의형제 맺기 등의 프로그램들은 매우 적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은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꾸준한 실천을 요하는 것들이다. 이중에서 비교적 豫算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숙식이나 직업알선, 의무실 등은 敎會에서 實施하기가 힘들겠지만 특별한 훈련이나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나머지의 프로그램들 신문, 책 읽어주기, 안마, 간담부름, 행정업무 대행, 나들이 동행, 의부모·의형제 맺기 등은 敎會의 성원들이 관심만 갖는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¹¹²⁾

112) 서경석, 전제서, p. 70.

나. 분석 결과

<表 3-3> 주요 특징

유 형 특 징	노인시설(법인)	노인학교(비법인)	자원봉사 운영 (지원/방문)
1. 교회의 일반적 특징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의 대형교회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의 중대형교회	역사 있는 중소도시의 중소형 교회
2. 노인복지 역사	11~20년	6~10년	5년이하
3. 노인복지 실시와 목적	이웃사랑의 실천 지역사회의 복지	이웃사랑의 실천 지역사회의 복지	※동기: 교회의 본질 적 사명
4. 애로사항 ① 설립당시 ② 현재 ③ 프로그램실시상 ④ 자원봉사실시상 ⑤ 개선방안	① 행정관청의 까다로 운 절차와 조건	① 교인의 사회봉사의 식의 부족 ② 자원봉사자의 부족 ③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족 ④ 교회차원의 해결	④ 전문지식의 부족
5. 예산(평균)	법인전체예산: 약 5억원 노인관련예산: 약 1억 8천만원	노인학교예산: 1,100~1,500만원	파악하지 못함.
6. 프로그램 ① 많이 하는 것 ② 적게 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급식, 의료, 교육, 오락, 경로잔치, 상 담, 효도관광 등 ② 부업알선, 숙식, 신 문, 책 읽어주기, 안 마, 나들이 동행, 행정 업무 대행 등	① 급식, 경로잔치, 효 도관광, 세탁, 병문 안, 생활용품 전달, 용돈 지원 등 ② 직업알선, 숙식, 의 무실, 오락, 신문, 책 읽어주기, 안마, 나들 이 동행, 행정업무 대행 등
7. 이용자의 특성	70대의 여성 무의탁 노인이 대부분	70대의 지역의 여성노 인이 대부분	※노인시설
8. 자원봉사자 수 (① 전체 ② 교회자 원봉사자)와 특성	① 평균 120명 ② 평균 50명	① 대략 11~20명선 ② ①의 수와 동일	방문회수: 1년 1~5회 활동부서: 여전도회 관리자: 부서의 장 문제점: 교회내의 사 회복지자원 활용하지 못함.

자료: 서경석, “한국 교회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71.

老人施設, 老人學校, 自願奉仕 活動 運營의 세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老人福祉와 地域社會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老人福祉 실시의 결정적 요인이 堂會長의 권유(66%)로 응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실시의 목표도 이웃사랑의 실천(44%), 지역사회의 복지향상(2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老人福祉 실시상의 어려운 점과 그 해결방안이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老人福祉(老人學校) 실시상의 가장 어려운 점은 老人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족(41%),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29%)인데 그 해결방안은 教會의 차원에서 해결한다(50%)이다.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수에 비해서 그다지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老人施設, 老人學校, 自願奉仕 運營의 프로그램 실시상의 공통점은 급식(79%), 의료/보건(52%), 교육/훈련(69%), 오락/휴식(55%), 상담(95%), 노인대학(72%), 경로잔치(69%), 효도관광(66%) 등의 老人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一回的이고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서 의료적 서비스나 정서적 결연, 행정업무 등 좀 까다롭고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의 실시는 매우 적게 하고 있음이 조사결과로 드러난다.¹¹³⁾

넷째, 이용자 대상자의 현황에서는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에게 그 문을 열고 있다. 다시 말해서 老人施設의 경우는 무의탁노인에게, 老人學校의 경우는 무조건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113) 서경석, 전제서, p. 66.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人力과 管理의 면에서는 教會內的 사회복지 관련자원의 활용이 너무 미미하다.

여섯째, 敎育과 訓練의 면에서는 敎育과 훈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과 그 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일곱째, 地域社會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⁴⁾

114) 서경석, 전거서, p. 67.

제 4 장 研究 結果 問題點 및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活性化 方案

제 1 절 研究 結果 問題點

1.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지금까지 본 논문은 老人問題 危機 해소를 위한 방안을 위하여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먼저, 老人問題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하나의 부산물이다.

老人問題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원인은 첫째, 老人人口의 증가로서 이는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볼 때 老人에 대한 扶養負擔의 계속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 특히 大家族 중심에서 小家族 중심으로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셋째,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도시화는 老人의 1차적 社會不適應 현상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변화는 2차적 문제를 유발한다. 넷째,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이 일으키는 문제이다. 다섯째, 경제적인 문제이다.¹¹⁵⁾

老人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보면 老人은 신체적으로 노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노화현상을 생물학적 측면에서 볼 때 흰머리와 함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老化의 첫째 징조이다. 청각 쇠퇴와 소화기능이

115) 김명규, 전게서, p. 75.

쇠퇴하게 된다. 신체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老人에게는 질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老人은 심리적으로 건강상 혹은 경제적인 불안감, 생활상의 적응 불완전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초조, 性活動의 감퇴, 고독감, 소외감, 인생의 낙오감이 많아지는 것이다.

산업화·공업화·도시화는 인구와 가족의 이동을 유발하여 가족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核家族化의 추세는 효도·동거·존경·부양 등의 의식의 약화와 老人의 권위약화,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경제적 빈곤까지 겹쳐서 老人問題는 개인문제를 지나서 가정과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대책없는 停年退職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에게는 정년제라는 두텁고 높은 “탄식의 벽”으로 인해서 아무리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만다.

老人은 주변에서 임종의 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를 목격하면 죽음의 원인에는 상관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된다. 그러나 老人들은 젊은 세대의 부모로써 모든 것을 희생하여 가정과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이며 오늘날의 훌륭한 인재를 양육시킨 공로자요 현재의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초가 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대들은 老人들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임을 새삼 강조해야 할 것이다.¹¹⁶⁾

116) 김명규, 전계서, p. 76.

2. 교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가. 내적인 문제

첫째, 環境 適應을 위한 教會的 要求의 문제로 산업화에 수반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老人役割 감소 기능을 教會의 교육적 諸 기능의 감소로 들 수 있다. 教會的인 필요의 문제는 老人教育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요구중의 하나가 教育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社會變動의 적응을 위한 교육적인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을 설정할 때, 사회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변화와 老齡化의 진행으로 인한 老人들의 역할상실, 경제적인 빈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孤獨感, 사회적 지위의 하락, 신체적 노쇠현상과 질병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問題點들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교회가 지니고 있는 老人을 위한 信仰的 教育기능은 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¹¹⁷⁾

둘째, 表現的 要求의 문제로 老人은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대인 관계를 많이 가짐으로서 고립 또는 소외에서 탈피하려는 욕구로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또한 견학이나 현장탐방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 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있어야 하나 教會內에서 조차 노인들의 활동 또한 좁고 제한적이다.

셋째, 社會에 貢獻하고자 하는 要求의 문제로 老人 학습자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며, 또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임을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117) 이상명, "교회의 노인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요구 조사", 「사회개발논총」, 제13집,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1, p. 189.

教會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宣敎活動이나 宗教行事に 참여토록하여 그들의 경험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짜여져야 하나 그러한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넷째, 經濟活動에 참여코자하는 요구의 문제로 老人들은 經濟活動의 은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급격한 생활변화를 막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餘暇를 선용한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을 터득시키는 교육이 부족하다.

다섯째, 實在的인 삶의 방법과 질에 영향을 주려는 요구의 문제로 老人敎育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질에 영향을 미치고 實生活에서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老人敎育은 지식적인 기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 도움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이와같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나 부족하고 너무 획일화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¹¹⁸⁾

나. 외적인 문제

첫째, 教會의 開放에 대한 요구의 문제로 教會의 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그러므로서 教會가 地域社會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教會를 開放하여 老人들의 모임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나 너무 제한적이고 閉鎖的이다.

둘째, 教會의 財政的인 지원 요구의 문제로서 老人福祉 서비스를 위하여 教會의 財政的인 支援이 활발해야 하나 늘 재정부족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老人들이 教會內 복지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

118) 이상명, 전게서, p. 189.

여도 경제적인 문제로 참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教會의 老人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해도 財政의 貧困으로 폭 넓은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地方教會와 相互交流 活動 要求의 문제로 教會의 老人福祉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地方教會의 老人部나 아니면 농, 어촌 教會의 老人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또한 그곳의 教會를 방문하여 현장학습의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教會에서는 농, 어촌 지역의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추진하여야 한다.¹¹⁹⁾

제 2 절 老人危機 克服을 위한 教會內 老人福祉 서비스 活性化 方案

1. 사회적 관점에서의 방안

과거에는 우리의 老人問題가 별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문제의 대두로 오히려 소외상태로 변모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無依無托老人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老人들을 위한 老人危機 克服을 위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시급히 보완되어져야 하겠다.¹²⁰⁾

119) 이상명, 전게서, p. 190.

120) 김명규, 전게서, p. 79.

첫째, 老人들을 위한 經濟政策과 社會福祉次元에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 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牧會的인 차원에서도 敎會는 물론 법 政府次元에서 老人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뿌리깊은 敬老孝親 사상이 매우 퇴색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敬老孝親 思想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서 가족적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社會 전체가 老人의 공헌에 보답하는 면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敎會에서는 老人 개개인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 우리의 老人問題에 대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이나 정책,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인데 하루 빨리 老人問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老人問題에 대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이나 정책 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敎會와 더불어 각종 후원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老人들을 위한 특별한 投資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까지의 老人保護는 시설보호이나 생활보호법상의 주택보호 등 일부 결핍이 있는 특수 老人의 보호에만 국한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공적 부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老人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保護對象을 서서히 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敎會에서는 老人들의 身體的·精神的 건강에 필요한 도움을 주며 靈的 욕구까지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¹²¹⁾

다섯째, 지역사회에서는 老人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老人教育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敎會

121) 김명규, 전게서, p. 80.

에서는 老人問題를 全敎人들에게 敎育하며 老人을 위한 행사 계획을 더 많이 수립, 실천하고 老人들을 위한 계속적인 시설 운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老人問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해 주며 老人에게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할 老年學에 관한 연구가 사회적·종교적으로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老人들은 일을 원한다. 그 이유는 생계비 마련과 일하는 보람을 찾고자 함이다.¹²²⁾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연령이고 많은 경제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知的, 人格的 완숙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사회의 뒷전으로 물러나야하는 老人들이 당하는 심각한 危機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老人들에게 적당한 직업을 주어야 한다. 老人들의 취업은 노인 소득원의 확보, 참여와 역할감 증대, 건강관리, 여가 선용, 사회보장비의 절감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¹²³⁾

2. 교회적 관점에서의 방안

가. 기존의 노인복지를 실시하는 교회의 차원에서

첫째, 老人福祉와 관련하여서 전문집단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전문집단과 연결통로를 만들고 그 관계를 개선하여 이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老人福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내실성을 기해

122) 김성순, “노인은 일을 원한다”, 「노인문제 그 현주소」, (중앙일보, 1984), p. 63.

123) 상계서, p. 63.

야함이 제기된다. 특히, 老人學校의 경우 老人과 관련된 많은 資源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老人學校의 실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老人學校와 관련된 사업(無依托老人의 지원강화, 단순한 식당봉사의 차원에서 전문화된 정서적 서비스의 영역으로 발전 모색)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自願奉仕者와 實務者의 경우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방법을 노회나 총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敎會 自體의 지원이 많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회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閉鎖性은 개선되어야 한다. 항상 敎會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敎會의 閉鎖性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老人學校와 관련하여서는 유급자원봉사자의 도입실시와 관련 학과와 협력하여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¹²⁴⁾

나. 전문가집단의 차원에서

첫째, 老人福祉와 관련하여서 敎會와의 적극적인 동반자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敎會는 많은 인적, 재정적, 시설과 공간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의 동기가 매우 강한 집단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24) 서경석, 전게서, p. 73.

둘째, 老人福祉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教會의 세팅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즉 教會라는 종교적 성격과 教會의 지역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敎育과 訓練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敎育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¹²⁵⁾

다. 노인복지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교회에 대한 제언

첫째, 個教會의 특성, 즉 예산의 규모, 시설과 공간, 그리고 社會奉仕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老人福祉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법인화를 시키는 작업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고, 행정관청의 허가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1995年 老人福祉事業指針에는 10人 미만의 老人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되어 있다. 법인화를 시킬 정도의 의지와 재정적 기반이 있다면 그룹홈 형태의 사업을 실행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老人福祉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地域社會와 敎人の 욕구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사업의 조사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牧會者의 意識轉換이 필수적이다. 즉 老人福祉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教會의 성장이나 전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老人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에서 老人福祉에 대한 투자를 할 때만이 老人에 대한 서비스와 教會의 부흥성장이라는

125) 서경석, 전게서, p. 73.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聖書는 우선 長壽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자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며 祝福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老人을 공경하여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老人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손들을 선도하며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老人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老人을 위한 구체적인 老人 牧會의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老人들을 올바르게 안내하여 인생행로에서 유종의미를 거두게 하며 특히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老人 牧會는 老人을 대상으로 老人神學을 근거로 해야 하며 老人의 구원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¹²⁶⁾

126) 서경석, 전게서, p. 75.

제 5 장 結 論

韓國社會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老人問題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 근대 문화의 울타리에서 안주하던 老人들이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심각한 정체危機에 처해있는 것이다. 生理的인 장애요소에 더하여 가정의 변화, 거주 환경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 사회적 충격요소들이 설상가상으로 그 중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老人들이 가지는 內的 問題는 대략 個人的인, 社會的인 問題들을 1차적으로 들 수 있다. 건강의 악화에서 오는 무력감,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치관의 상충에서 오는 소외감,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절망감, 경제적인 무능에서 오는 자학증세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物質的인데에 있기 보다는 精神的 孤獨感에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老人으로서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하는 노력이 凡 敎會的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개괄적인 문제들은 韓國社會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보다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老人의 경제적 능력, 한국 가정의 老人 扶養 형태와 양상, 老人이 거주형태를 고려하면 이 老人問題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제는 韓國敎會가 老人問題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韓國敎會가 老年部에 대하여 별다른 노력없이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황금어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부서에 못지 않는 老年部 育성이 목회적 관점에서 반드시 요구된

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헌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老人問題에 대한 教會의 활동 방안은 教會學校 老年部 설치, 敬老大學 運營, 학교와 경로당의 방문위로, 老人 생계보조, 무료진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개시하여 韓國 教會內 老年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문제가 의식화되어 이 방면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런 것이 되는 일이다. 또한 老人에 대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老人福祉 運動을 教會가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선교운동에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뿐 아니라 세계 教會에 큰 공헌을 세우게 되고 세계 福音化 運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老人들이 가지는 관심과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 유지와 남은 여생의 삶이 아름답게 계속되어지는 일이다. 모든 생활에서 잘 적응되고 보람있게 전개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老人들이 가지는 課題는 죽음에 대한 것이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죽음이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세계에서의 축복생활이라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은 老人으로 하여금 孤立感이나 孤獨에서 벗어나게 하여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教會는 지금까지 教會의 성장을 위하여 성경공부에만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平生教育의 이념속에서 老人福祉 서비스를 실시하는 教會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老人福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老人들의 학습욕구와는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教會의 老人福祉 서비스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老人들을 지도, 교육, 상담을 담당할 전임 敎役者의 양성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老人福祉 분야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神學과 敎育學을 전공한 교역자를 통해서 敎會의 老人福祉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凡 敎團的인 次元에서 老人敎育과 宣敎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老人敎育 전문 지도자를 통해서 학습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셋째, 全敎會의 老人에 대한 관심이다. 敎役者는 은퇴한 老人이나 낙심자, 소외된 老人들을 심방하고, 敎會內에서는 老人敎育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老人福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敎會의 開放이다. 敎會를 개방하여 地域사회的一部分으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이나 비교인 모두 다함께 敎會의 老人敎育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그들이 敎會를 활용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1) 單行本

김동배, “노인문제와 노인의 건강한 삶”, 『노년학을 배웁시다』, 서울: 홍성사, 1993.

김정휘 역, 『노인 심리학』, 서울: 성화사, 1990.

류영기, 『성서사전』,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리원, 1990.

박권원 역, 『현대 목회 상담- 카운셀링의 기본 유형』,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박종삼,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4.

성 열 역, 『인간의 죽음』, 서울: 분도출판사, 1988.

윤 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1993.

이원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의 조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유형”, 『목회와 신학』, 두란노, 1994. 5.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정영사, 1992.

임춘식, 『현대 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복지학』, 1997.

-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정인찬,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4.
- 정태기, 『위기 목회 상담』,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3.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한동윤, 『호스피스』, 서울: 말씀과 만남, 1993.

2) 刊行物 및 기타

- 김성순, “노인은 일을 원한다”, 「노인문제 그 현주소」, 중앙일보, 1984.
- 김성식, “정능경노대학 운영에 관하여”, 대담, 1990. 10. 20.
- 박재간, “주머니가 빌 때 더 빨리 늙는다”, 「노장」, 1984년 1월호.
- 박재간, 임춘식, “한국 노인의 생활고 의식 구조에 관한 실태 조사”, 「노인 문제 연구 보고서」, 제5집, 서울: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 1983.
- 박종삼, “민간자원동원과 종교사회복지의 과제”, 「전국사회복지대회 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1.
- , “한국교회의 사회봉사관 모델”, 서울신학대 춘계공개강좌, 1994.
- 보건사회부, “91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분석”, 1991.
- 성규탁, 김근식, “노인들의 안녕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1988년 제8호.
- 송대현, 윤가현, “노년기의 고독감;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1989년 제9호.

- 안종만, “노년기에 대한 이해”, 「벵티스트」, 1994년 5, 6월.
- 이기춘, “목사와 위기상담”, 「월간목회」, 1990년 10월호.
- 이대건, “임종자에 대한 교회의 봉사”, 「기독교교육」, 1990년 10월.
- 이상명, “교회의 노인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요구 조사”, 「사회개발
논총」, 제13집,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1.
- 정영식, “교회에 있어서 노인은 누구인가?”, 「풀빛목회」, 1982년 12
월호.
- 정태기, “아픔과 목회상담”, 「기독교사상」, 1983년 9월.
- 최성재,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노인문제의 원인 및 진상”, 「목회
와 신학」, 1994년 5월호.
- 허 건, “기술과학시대의 인간소외”, 「신앙세계」, 1994년 6월.
- 허 정, “노인질병 현실과 대책”, 「노인문제 현주소」, 중앙일보, 1984.
- 현두일, “한국 가족과 노인문제”, 「기독교사상」, 1992년 5월.

3) 論文

- 김명규,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목회의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민영, 농촌 노인기 위기상담,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4.
- 박양조, 노인목회의 방향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85.
- 서경석, 한국 교회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숭실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손재철,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양서승, 한국교회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결과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유희선, 교회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재만, 사별에 대한 위기상담,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참여 방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2. 해외문헌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Co, 1980.

Alfred Kadushine,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Macmillan, 1980.

ABSTRACT

A Study on the Church Welfare Service of the Elderly to Weather Crisis

Jung, Yong Bae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ion

Hansung University

The trend towards nuclear families has brought changes to the family lives and values which has brought the elderly as a major social problem. After the Liberation, due to the induction of western culture, individualism and nuclear families have become general where the spirit of filial piety and respect based on familism was the principal value in our traditional society. Now such values are disappearing resulting in a crisis of the elderly due to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and neglect from the society, the young, and the family.

Such crisis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personally or within the family. It is rather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at a social or national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aims, first the concept, its significance, and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crisis was looked into theoretically to state the different types and contents; then as a method

to enhance readaptability to the community, ease solidarity,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living for the elderly, planning a church welfare was suggested; and lastly in order to solve the ever increasing problems of the elderly, the church welfare service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service of the elderly welfare, first, with the community resources, ①there is plenty of human resources to be used, ②church devotees can help financial problems, ③facilities of the church can be used and, ④a variety of structural elements can be provided to the elderly welfare service.

Second, as types of church welfare service to the elderly, ①operation of the home for the aged which is an institution within the church, ②operation of senior schools in the church, and ③volunteering work for the elderly have been performed. However an analysis of these operations resulted in the following problems. ①There is lack of program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②the operators'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③limited participation in utilizing these facilities, ④defect in using related resources from the social welfare on the grounds of human resources, and ⑤the need to improve the methods and quality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the above problems, as a method to make the elderly service more active, ①it is necessary to get help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e elderly welfare, ②there needs to be a more diverse program, ③it must outgrow from a closed operation system, and ④it must operate senior schools and bring in a paid volunteering system.